

현장 포커스

업계동향

(주) 카길에그리퓨리나
Cargill Agri Purina, Inc.

News Release

일 시: 2014년 3월 12일

연락처: (주)카길에그리퓨리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김남주 031-710-6009 nkim1@cargill.com

2015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가져 축산 관련 인재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

2015년 2월 24일 - 재단법인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 (주)카길에그리퓨리나 대표이사)은 분당 본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장학생 40명에게 2015년 문화재단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화재단은 국내외 축산관련 분야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축산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15년 장학생은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15명, 대학원생 4명으로 총 40명의 인재 양성에 쓰여지게 된다. 카길에그리퓨리나 장학금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5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이보균 이사장은 “축산 분야에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재이다. 먹거리 사업으로 미래 축산에 대해 다같이 희망을 가지고 한국 축산을 이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한국 축산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과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2015 장학금 전달식 장학생들과 임직원들.

업계동향



자 료 문 의 : (주)선진 전략기획팀 우경덕 담당 02-2225-0668 / 010-3503-8627
 홍보대행사 메타컴 최유경 팀장 02-566-9109 / 010-2308-6989

우 134-060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17-3 선진빌딩

Tel. 02-2225-0668 Fax. 02-471-4440

선진미트아카데미, 선진팜 VIP고객 대상 “소비자 좋은고기교육” 실시
 쿠킹클래스와 함께하여 높은 교육 만족도,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

축산식품전문기업 (주)선진(총괄사장 이범권)에서 운영하는 선진미트아카데미(원장 유보희)는 지난 3월 5일과 3월 12일 2회에 걸쳐서 신개념 정육점인 선진팜의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좋은 고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선진미트아카데미의 “선진팜 고객대상 좋은 고기교육”은 올바른 육류소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1시간여의 특강과 “소고기, 돼지고기를 활용한 일품요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구성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의 교육은 올바른 육류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소고기, 돼지고기 부위에 대한 이해, 부위별 요리용도, 고기보관방법, 좋은 고기구별법, 요리법에 대한 팁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실제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평균 95점 이상이었으며 추천 의향(NPS)도 60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좋은 고기에 대한 특강 후 이어진 이쿱의 김태호 셰프와 함께한 쿠킹클래스는 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고기, 돼지고기를 활용한 일품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여 저염 요리, 육류단백질을 활용한 저 칼로리 요리, 육류와 야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선진미트아카데미에서는 국내육류소비문화의 발전을 위해 13년 하반기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둔촌동에 소재한 교육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좋은 고기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외부에서 “좋은 고기교육” 특강요청이 있을 경우 출강도 진행하고 있다.

선진미트아카데미에서는 고기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식육입문과정(3일 과정)을 4월 20일~22일, 6월 22~24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좋은 고기교육 특강 및 식육 입문반 참가문의 02-2225-077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6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2011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 1월 28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새 이름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해 ‘국민 행복 식탁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증명서류 발급 업무(도축장 HACCP 제외)와 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평가 업무, HACCP의 운용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축산물 위생 및 HACCP에 관한 교육사업, 기술지원 사업과 기타 HACCP 관련 부대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친환경농산물(축산물) 인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에 위치한 본원 외에 3개 지원으로 중부지원(대전), 영남지원(대구), 호남지원(광주)이 있으며, 현재 약 115여 명의 직원이 2실 3처 1역 3지원 10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HACCP(해썹)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이물 혼입 등)이 해당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위생관리제도로,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리글자로 미국에서 우주비행사들에게 무결점에 가까운 안전한 우주식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3년 FAO/WHO가 HACCP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CODEX가 ‘HACCP 시스템 적용지침’을 채택하여 각국에 HACCP 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기준 도입을 권고했다. 국내에는 97~98년 도입되어 축산물 HACCP과 일반식품 HACCP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축산물 HACCP과 일반식품 HACCP은 모두 ‘위해요소 중점관리’라는 원리는 같으나 주로 완제품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일반식품 HACCP과 달리 축산물 HACCP은 사육단계의 살아있는 가축(생물)부터 다룬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질병 차단, 항생제 잔류, 주사바늘 등 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농장 HACCP은 현재까지 약 5,900여 농장에서 도입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축산물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사료단계(배합사료, 단미사료(TMR)) 148개소, 가축사육단계(돼지, 소, 닭, 오리, 메추리, 부화업, 산양) 5,977개소, 가공단계(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집유업) 2,194개소, 유통단계(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582개소로 총 8,901개소이다(2014년 12월 31일 기준). 2007년 703개소에서 인증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단계별 인증률의 차이가 크고 축산물의 유통 단계별 유기적인 연결 체계가 미흡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원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축산물의 모든 단계에 걸쳐 HACCP을 적용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축산물 HACCP 체인 구축’ 사업을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4년 초 HACCP 체인 구축 사업을 법제화 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가 시행(2014년 1월 31일)되는 계기가 됐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축협, 농업경영체 등 경영 주체가 단계별로 적용되는 HACCP 인증 축산물을 총괄 관리하고 이를 통합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HACCP 인증제도가 단계별로 HACCP 인증을 받는 구조에서 전(全)단계 통합인증 추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증원은 현재까지 다양한 축종(한우, 돼지, 닭) 및 권역(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별 18개 축산물 브랜드경영체와 업무협약(MOU) 체결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전국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인증을 준비 중인 경영체 대상 전담심사관 지정,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식의 찾아가는 무료기술상담 및 HACCP 전문교육 추진 및 MOU 체결 브랜드 대상 HACCP 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업계 관계자 및 수요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총 4개 경영체 평창영월정선축협(대관령한우), (주)현대그린푸드, 무지개영농조합법인(진생원인삼포크), 농업회사법인(주)계림농장에서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았다.

인증원은 「HACCP 인증의 효율적 수행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와 「우리 모두의 밥상에 안심 축산물 공급!(우수 축산물 브랜드 안전관리통합인증 85% 달성)」을 미션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보건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과 헌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는 FTA 등을 통해 육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확대 공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 브랜드 경영체 등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식육판매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축산물위생검사실



HACCP 현장심사



현장기술상담



사회공헌활동

정리: 장문백(편집위원장)